

News

금감원에 힘 실어준 與.. '분조위 배상안,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하라'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의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윤석현 금감원장이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지원사격...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KIKO와 라임 사모펀드 배상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정부와 여당의 본격적인 압박 시작

코로나 대출만기·이자유예 연장될 듯...은성수 "이달 말 발표"

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의 추가연장 여부를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권과) 대출 만기와 이자유예 추가 연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의견을 더 수렴해 가급적 이달 말에 발표해 불안정성을 조기에 종식할 것"

6월 은행대출 연체율 0.33%...코로나 여파에도 역대 최저치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보다 0.09%포인트 하락한 0.33%로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 말보다는 0.04%포인트 내렸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15%포인트 하락한 0.44%,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

KB금융, 차기회장 후보 추천 절차 본격 착수

매일경제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8월 12일 회의를 개최해 세부 준칙을 마련, 11월 2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윤종규 회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에 착수

9월 16일에는 Short List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회장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한 뒤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9월 25일 회의에서 주주총회에 추천할 예정

삼성생명, 방카슈랑스 급성장 이면의 자충수 우려 왜

데일리안

올해 들어 5월까지 국내 24개 생명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거둔 초회보험료는 총 2조2,24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051억원) 대비 16.7%(3,191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
생보업계 방카슈랑스 영업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게 된 데에는 삼성생명 영향 절대적...삼성생명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4,131억원에서 8,928억원으로 116.1% 급증

DB손보, 상반기 순이익 3,494억...전년 대비 69.4% ↑

파이낸셜뉴스

2분기 매출액은 3,536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97.9% 증가한 2,118억원을 기록...상반기 투자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00억원 가까이 증가
관계자,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운행 감소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 효율적 사업비 관리, 전략적 자산운용으로 인한 투자영업이익 상승 등으로 상반기 실적이 개선됐다"

메리츠화재, 상반기 당순익 2,134억...전년比 56.8% ↑

이데일리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9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1%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4조4,8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

관계자, "지속적인 장기인보험 매출 성장으로 인한 원수보험료의 증가와 꾸준한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합산비율 개선 등이 이뤄졌다...또한 업계 평균대비 높은 자산운용 이익률도 이어

5,000억 피해 '옵티머스 사기' 제보 받고도 덮었다

한국경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혁진 전 옵티머스운용 대표와 직원들은 2017년 말 펀드 관련 사기 혐의를 상세히 기술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에 제보

옵티머스자산운용 전직 임직원들이 2017년부터 수차례 고소와 진정을 제기했지만 당국이 사건을 덮어 투자자들에게 5,000억원대 피해를 입히는 대형 사건으로 번졌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일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